

제5과 연습문제 풀이

D05.01 다음 각 구절에 짚디를 적용하시오.

D05.01(01) atra-eva-mohāt-cāpalāt-lobhāt-hamsāt-chattrāt-janāt-tiṭṭibhāt-śāstrāt-ca-iva
atraiva mohāc cāpalāl lobhād dhamsāc chattrāj janāt tiṭṭibhāc chāstrāc ceva

D05.01(02) san-śobhanāt-śiṣyāt-vākyāt-yuddhāt-mitrāt-āyatanāt-daiivāt-ḍambarāt-ca-eva
sañ chobhanāc chiṣyād vākyād yuddhān(/yuddhād) mitrād āyatanād daivād ḍambarāc caiva

D05.01(03) aham-mama-eva-ācāryān-śiṣyau-uṣṭrāt-lobhāt-tiṭṭibhāt-śobhanāt-hamsāt-jalāt-
śāstrāt-loke-arakṣat
ahaṃ mamaivācāryāñ chiṣyāv uṣṭrāl lobhāt tiṭṭibhāc chobhanād dhamsāj jalāc chastrāl
loke 'rakṣat

D05.01(04) samyak-bhavān-tvat-ca-mat-ca-eva-atrasat-śobhanāt-iti-uṣṭrāya-tasmai-iha-
avadat-cāpalaiḥ-ca-taiḥ-rāmaḥ-ajānāt-ca
samyag bhavāms tvac ca mac caivātrasac chobhanād ity uṣṭrāya tasmā ihāvadac cāpalaiś ca
tai rāmo 'jānāc ca

D05.01(05) tat-hi-loke-eva-chāgān-ṣaṭ-hamsān-ca-tat-śobhanaḥ-diggajah-asurāt-mārāt-
cāpalāt-janāt-ca-iha-arakṣat
tad dhi loka eva cchāgān ṣaḍ dhamsāṃś ca tac chobhano diggajo 'surān (/surād) mārāc
cāpalāj janāc cehārakṣat

D05.02 아래의 문장들을 한국어로 옮기시오.

D05.02(01) devālayād dūraṃ vaṇijako daṇḍena vānarau tudati sma.
사원에서 멀리 떨어져서 상인은 몽둥이로 두 원숭이를 때렸다.

D05.02(02) sumukhau vīrau ca janau narakāt svargaṃ gacchataḥ.
잘생기고 용감한 두 사람이 지하세계에서 하늘나라로 간다.

D05.02(03) brāhmaṇebhyo 'parāḥ puruṣā devān api na paśyanti.
사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신들조차도 (눈으로) 보지 않는다/못한다.

D05.02(04) cāpalāt tu vākyād mitrāṇy evāmitrāṇi bhavanti sma.
그런데 경솔한 말 때문에 친구들이 곧 친구들이 아니게 되었다.

D05.02(05) ācāryasya vacanena mama vīraṃ mitraṃ yuddhena vinā sumukhair dūtaiḥ saha

nṛpasya mārgeṇa nagarasya dvāraṃ gacchati sma.

스승의 말 때문에 내 용감한 친구는 싸움 없이 잘생긴 전령들과 함께 왕의 길을 통해 도시의 입구로 갔다.

D05.02(06) nalasya tulyo nāstīha nagare.

여기 도시에는 날라와 대등한 자가 없다.

D05.02(07) yuṣman naḥ sukhaṃ nāsti.

너희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D05.02(08) adya mayā vinā mama priyā gṛhaṃ gacchanti.

오늘, 나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간다.

D05.02(09) nṛpasya mūrkhāṃ mitraṃ devebhyo 'pi na bibheti.

왕의 어리석은 친구는 신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D05.02(10) brāhmaṇāḥ puruṣāṇāṃ śreṣṭhā iti vyaṃ bhāṣāmahe.

“사제들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다.”라고 우리는 말한다.

D05.02(11) dhūrtānāṃ vacanena mūrkhō vaṇijako nagarād aranyāya gacchati sma.

사기꾼들의 말에 따라 어리석은 상인은 도시에서 숲으로 갔다.

D05.02(12) yuvābhyāṃ sahāvāṃ dhanāya yajāvah. dhanāṃ tu na labhāvahe.

너희 둘과 함께 우리 둘은 재산을 (얻기) 위해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우리 둘은 재산을 얻지 못했다.

D05.03 다음 이야기를 한국어로 옮기시오. (brāhmaṇa-dhūrta-kathā)

D05.03(01) mūrkhō brāhmaṇo nṛpasyāraṇye 'sti. atha brāhmaṇas ca yajñasyārtham

grāmasya vaṇijakāc chāgaṃ labhate sma. ahaṃ grāmāc chāgaṃ skandhe nayāmi

nṛpasyāraṇyāya cāgacchāmīti manyate sma.

왕의 숲에 어리석은 사제가 있었다. 그런데 사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을의 상인으로부터 염소를 얻었다. “나는 염소를 어깨에 (짊어져) 가지고 가서, 마을에서 왕의 숲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

D05.03(02) atha tri-dhūrtā brāhmaṇaṃ paśyanti sma. ahaṃ chāgaṃ icchāmīti dhūrto 'nyau

dhūrtau lobhād vadati. āvāṃ api cchāgaṃ icchāva ity ubhau bhāsete. upāyena vyaṃ

chāgaṃ brāhmaṇāl labhante, atha tu kim asmākam upāya iti manyante sma. tatkālaṃ dhūrto

vadati he mitre 'dyopāyam eva labhe chāgasyārtham ca śreṣṭham upāyam upadiśāmīti. dhūrto mitrābhyām dhūrtābhyām upāyam prati samvadati sma.

그런데 세 사기꾼이 사제를 보았다. “나는 염소를 원한다.”라고 한 사기꾼이 탐욕 때문에 다른 두 사기꾼에게 말했다. “우리 둘도 또한 염소를 원한다.”라고 둘이 말했다. “요령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제로부터 염소를 얻겠다. 그런데 하지만 무엇이 우리의 요령인가?”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때에 한 사기꾼이 “어이 두 친구들, 지금 내가 요령을 알아냈다. 그리고 염소를 얻기 위한 최선의 요령을 내가 가르쳐 주마.”라고 말했다. 사기꾼은 두 동료 사기꾼과 요령에 대해 의논을 했다.

D05.03(03) tataḥ prathamo dhūrto brāhmaṇam vadati. aho brāhmaṇa, kim iti tvam kukkuraṃ skandhe nayasy āgacchasi ceti. kim tvam vadasi. tan na kukkuro 'sti.

yajñasyārtham chāgaḥ. kukkurāṃs tu naiva sprśāmīti brāhmaṇo vadati.

그리하여 첫 번째 사기꾼이 브라흐만에게 말했다. “어이쿠, 사제여! 왜 당신은 개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고 있습니까?” 라고. “당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당신이 말하는) 것은 개가 아니다. 제사를 위한 염소이다. 나는 결코 개들을 만지지 않는다.”라고 브라흐만이 말했다.

D05.03(04) paścād anyau dhūrtāv api brāhmaṇam vadataḥ. he, kim iti kukkuraṃ tava skandhe nayasi. tvam naiva brāhmaṇo bhavasīti. tato dhūrtasya vākyaḥ brāhmaṇasya saṃśayo bhavati. āvayor grāme brāhmaṇaḥ kukkuraṃ na sprśati kukkurād bibheti ca. kim iti tvam kukkuraṃ na paśyasi skandhe 'pi nayasīti pṛcchataḥ punar dhūrtau. tato dhūrtasya vacanād mūrkhasya brāhmaṇasya moho bhavati sma.

이후에 다른 두 사기꾼 또한 브라흐만에서 말했다. “이보게, 왜 개를 너의 어깨에 짊어지는가? 너는 분명 사제가 아니다.”라고. 그리하여 사기꾼의 말 때문에 브라흐만의 의심이 생겨났다. “우리 둘의 마을에서는 사제가 개를 만지지 않고 개를 무서워한다. 어째서 너는 개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게다가 어깨에 매고 가는가?”라고 두 사기꾼이 또다시 물었다. 그리하여 사기꾼의 말 때문에 어리석은 브라흐만의 착각이 생겨났다.

D05.03(05) mūrkhāś ca brāhmaṇaś cāpalena cchāgaṃ kṣipati manyate ca. katham mamendriyāṇi mohena hatāni. katham ahaṃ kukkuraṃ chāgaṃ paśyāmi. kukkurāṃś ca brāhmaṇā eva na sprśanti. adya mamāndhatvāt kukkuraṃ sprśāmi sma. tataḥ snānam icchāmi. snānasyārtham grhāya gacchāmīti. dhūrtā upāyena mūrkhād brāhmaṇāc chāgaṃ labhante.

그리고 어리석은 브라흐만이 경솔하게도 염소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생각했다. “어떻게 나의 감각기관들이 어리석음 때문에 망가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개를 염소로 본 것인가? 그리고 브라흐만들은 개들을 만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내가 눈이 멀어서 개를 만졌다. 그러니 목욕(정화의식)이 필요하다. 목욕(정화의식)을

위해 집으로 가겠다.”라고. 사기꾼들은 요령을 동원해서 어리석은 브라흐만으로부터 염소를 얻었다.